

전세계 민중과 파룬궁제자들이 리홍지선생님께 드리는 설문안

2008 년 춘절을 맞아 국내외 민중과 파룬궁 제자들이 년하장, 시가, 동화, 축하편지 등 각종 형식으로 리홍지선생님께 설문안을 드렸다. 그중 몇편을 골라 싣는다.



터키 전체 대법제자 드림



한국 대구시 대법제자 드림

형사경찰학원 학생의 축하편지

파룬따파는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내가 경찰이 된다면 파룬따파를 지지할 것입니다. 인권성화가 중국에 전달될 때 나는 염황 자손의 명의로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이기때문입니다! 변이된 환경에 마비될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각에 나는 리선생님께 삼가 축하를 드립니다. 파룬궁학원들 모두 새해에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당신들은 옳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해외 새해경축시위행진에서 두각을 나타낸 파룬궁학원 행렬

음력설 초사흘, 미국 뉴욕신년경축시위행진에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새해 축복을 드리고 있는 파룬궁행렬.



음력설 초나흘, 미국 워싱턴신년경축시위행진에서 파룬궁학원들이 표현한 씩씩하고 발랄한 댄스.



음력설 초나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신년경축 시위행진에서 파룬궁학원들이 전시한련화꽃차.



<신문(神韻)>은 인류문화예술에서 옳바른 시범을 보여주었다.



2008 년 2 월 9 일 저녁, 뉴욕 자심상업실내설계사 주홍유(周鴻儒)선생은 뉴욕신당인화인 신년만회의 신문예술단공연을 보고 감격되어 말했다. <신문은 지금 유행되고 있는 예술과 통속문화를 초월했고 인류문화예술에서 옳바른 시범을 보여주었다.>, <통속문화는 80 년대로부터 아주 나쁜 추세가 나타났는데 바 줄곧 욕망과 타락에 빠졌으며 새로운 감각자극을 추구했다.>, <신문은 한가닥의 깨끗한 물줄기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의 영구한 가치와 사람의 본원을 되찾았다.>





온통 얼음으로 덮인 전선주



매일 근 50 만명이 체류하고 있는 광주역전



혼란속에 빠져 울고 있는 녀성



●●●● 시들었던 포도가 되살아났다.

산동성 한 농민 이뉴는 집에 2무의 포도를 심었다. 2007년 8월 2일, 둘째 이모가 길에서 이뉴를 만났다. 이뉴는 울면서 <2무중 한무의 포도알이 크고도 좋았는데 이틀전에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시들고 어떤것은 썩기까지 했으니 1년동안 헛수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모는 <울지 말라. 지금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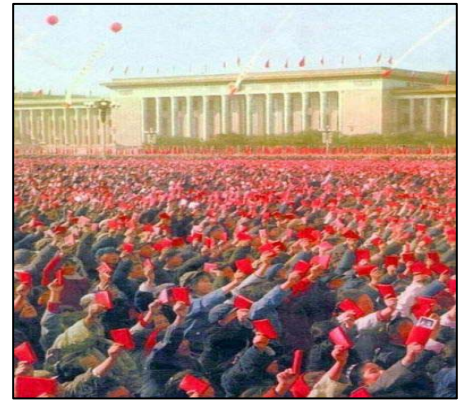
2008년 1월 10일부터 시작한 중국의 장강류역남북에 갑자기 큰비와 폭설이 내려 20개 성시가 재해를 받아 도로, 철도, 항공운수가 마비되었다. 수많은 려객들이 역전과 비행장에 갇혔다. 재해를 받은 사람은 1억을 넘으며 경제손실은 인민폐로 537,9 억원이나 된다. 굶어죽고 얼어죽고 깔려죽은 사람의 숫자는 지금 통계할 수 없다. 제 1선의 보도에 의하면 한 도로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200여명이 된다.

왜 재난이 있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날 중공의 부패한 정권과 사회에 대한 하늘의 경고가 아니겠는가? 오늘 중국에서는 로동자들이 실업당하고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탐관오리들이 횡행하고 관리와 상인들이 결탁하고 경찰과 토비가 한집안이 되었다. 백성들의 원한 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사회도덕은 일사천리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며 중공은 려차운동에서 8천만의 백성을 살해했으니 어찌 하늘이 용서할수 있겠는가?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한다.

폭설재해는 우리들이 빨리 각성하라고 하늘에서 내린 작은 경고이리라. 중공조직에서 탈퇴해야만이 재난을 피면하고 생명과 평안을 확보할수 있지않겠는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렸다.

마음속으로 “파룬따파 좋다.”, “쩐싼런이 좋다.”라고 묵념하고 네가 공산당 조직 단,대에서 퇴출한다면 복을 받을것이다.>라고 권유했다. 이뉴는 이모의 권유대로 묵념하고 단,대 퇴출성명을 발표했다. 며칠후 이뉴 집에 기적이 나타났다. 시들었던 한무의 포도가 회생하여 산량이 다른 한 무보다 더 많았다. 이뉴는 기뻐서 <파룬궁은 정말 신비해요.>라고 말했다.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



4. 문화대혁명기간에 부자간에, 부부간에, 모녀간에, 사생간에 서로 싸웠다. 이것은 이른바 “당성”이 중국사람들에게 가져다준 통과 재난이다.



5. 1989년 “6.4 도살”은 또 한 차례 “홍색공포”를 일으켰다. 애국청년들을 “반혁명폭란”이란 죄명을 씌우고 무정하게 탱크로 깔아죽였다.



6.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이래 지금까지 8년간 계속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하고 있는바 수천수만의 파룬궁학원은 집과 가족을 잃고 류리결식하고 감옥에 갇혀 생죽음을 당하고 있다.